인연으로 행복 추구하는 새해를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승정 목탁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 (果)는 거둘 수 없습니다.

짜증이나 싫다를 생각하면 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좋든 싫든 열매를 내가 걷어야 합니다. 내게 오는 인연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고, 기꺼이 받아드리면 업의 덩어리가 녹아내려 좋은 인연 좋은 복덕이 온다는 말입니다. 인연법의 원리를 되새기며 나를 사랑하고 나의 행복을 원한다면 이 순간을 함부로 하지 말고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에 더 적극적일 때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자인 여러분으로 하여금 또 하나의 길이 시작되는 신년 새해 이렇게 좋은 날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율을 청정히 하는 것

불교조계종 종정 혜인



도량청정무하예 삼보천룡강차지(道場淸淨無瑕穢 三寶天龍降此地)

마음이 청정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늘은 푸르고 한강물 유유히 흐른다. 국태민안하고 가화만사성이라. 국가는 성장하고 국민은 행복하니 대한민국이 극락이로다.

존경하는 불자여러분 전자국가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019년 새해에는 청정한 마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시대를 가름하지 못하면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12월 18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 플러그인을 정책목표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복덕이 구족한 나라를 만들기 바랍니다.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무한하라

真如苑 원주 真澄寺 수좌 대승정 이또신소



신년을 맞이하여 한국민 모든 분들의 다복과 불교계의 흥륭과 번영을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신뇨엔은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한국 · 고려대장경을 중요 저본으로 방대한 대장경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깊은 성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어 후세에 남긴 보물 대장경. 우리가 매일하는 정진과 이타행도 삼세시방에 걸쳐 구제의 진리인 '진여' 현성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사람과 자연의 조화 · 지복을 바라는 선한 마음과 행으로 진여는 영원히 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 빛의 진여를 찾아내어 모두 함께 정진하자 "

인류 행복과 평화 정착하길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세월이 일깨워주는 성쇠(盛衰)와 고락(苦樂)의 섭리(攝理)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는 시위와 정권교체로 숨가쁜 변화의 물결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지구촌은 폭염과 가뭄, 슈퍼태풍과 산불 등의 자연재해로 수많은 인명이 신음 속에 사라졌습니다. 지혜의 시대란 모든 탐욕과 무지를 벗고 대립과 갈등을 상생과 화해로 전환시킬 때 완성됩니다.

경자년 새해에는 이같은 지혜심을 발휘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환한 웃음이 피어나고 자연재해가 없는 가운데 인류의 행복과 평화가 정착되길 발원합니다.

동체대비(同體大悲) 구현하라

대한불교 불입종 종정 면철



사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공생공존은 연기법의 원리인데 내가 잘 살기 위해 남을 해침으로 나와 남이 함께 망가지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다. 이 세상 악업 가운데 제일가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겨 남을 해치는 일이다. 부처님 계율에 살생을 제일 덕목으로 한 것도 바로 이 점을 경계함이다.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수천수만이 죽어가는데 무기 만드는데 가공할만한 돈을 쏟아붇고 있으니, 이 어찌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경자년 새해는 우리 앞에 또 하나의 멍석을 깔아 놓는다. 저마다 제 깜냥대로 한바탕 멋지게 살아보라고.

차별심 버리고 평등히 대하자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경원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福과 智慧와 佛恩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은 500 大願에서 "혹 남에게 사무량심을 갖지 않은 중생이 설법을 들으면 사무량심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중생의 행복을 같이 기뻐해 주는 마음을 가지며, 모든 차별 심을 버리고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대하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더욱더 상생의 나눔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세상에 대일광 가득 빛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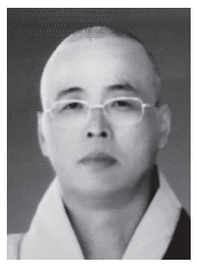
대한불교 삼보종 종정대행 법장



하늘에 불광이 이 땅을 밝혀 시방세계가 생기 넘치는 기운을 받습니다. 가정마다 천지의 기운 가득 쌓이고 온 세상에 대일광(大日光)이 가득히 빛납니다. 자연만물 법계를 노래하여 즐거움이 가득하니 늙어가는 황소가 걸음마다 생사무(生死無)를 노래합니다. 산골짜기 흐르는물 대해(大海)에 모여들고 벌들은 꽃을 찾고 나비들은 향기찾아 헤맵니다. 수행자는 도를 찾고, 속세인은 재물을 찾아가다 날저물어 집에 오니, 자대문(自大門)이 열립니다. 욕망에 얽매이면 노예신세 못 면하고 사상에 얽매이면 사람신세 불쌍합니다.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화합

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대봉



떠오르는 광휘의 태양처럼 우리 불자님들은 환골탈태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마음한번 잘 쓰면 고대광실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 세계요 불국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을 잘 사용하여 어떠한 마구니라도 물리칠 수 있게끔 참다운 법을 굴려서 경자년 새해에는 우리모두 화합해 성불합시다.

一切無礙人 一道出生死

(사)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일체 걸림이 없는 사람은
그 길로 생사를 벗어나네

하루를 지내고 나면
더 즐거운 하루가 오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따스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희망찬 庚子년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행복도 자타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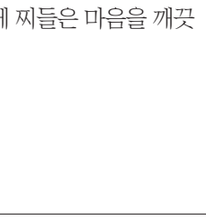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총무원장 호산성보



자비와 행복 이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들이 행복하길 바라는데서 오고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자신만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온 다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라. 어리석은 이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고 깨달은 이들은 남들을 위해 일하나니 잘 보라 이둘 차이를

청정한 마음으로 참된 삶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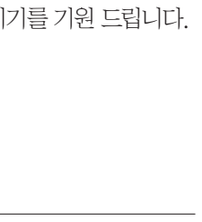
(사)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운남



우리불자들은 스스로가 하심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갈등을 치유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청정한 마음으로 참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이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보아 미망을 떨쳐버리고 진실된 나를 찾아가는 정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가는 곳 마다 좋은 인연 맺기를

(사)대승불교 본원종 종정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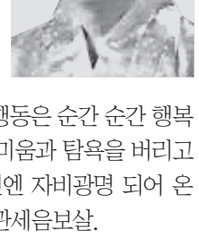


경자년새해 날마다 좋은날 되도록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에 밝은 태양이 솟아 온 세상 밝히듯 어두운 마음에 지혜의 밝은 등불 밝혀 날마다 좋은 날 되고 가는 곳마다 좋은 인연 맺어 만사형통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도록 합시다.

밝은눈으로 다시 태어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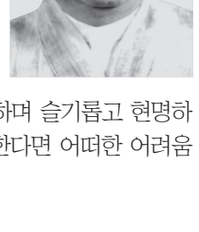
한국불교 전통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봉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른다면, 오직 더 많은 것을 구해서 죄악만 키우는 결과가 된다. 보살은 그렇지 않아서, 늘 만족하고자 생각하고, 가난해도 편안히 머물러 도(道)를 지켜, 오직 지혜 닦는 일에만 정진해야 할 것을 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밝은 눈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새겨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베풀며 살아갑시다

(사)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정 법호서호



경자년 새해에는 서로 베풀고 또한 하루에도 한량없이 찾아오는 망념에 사로잡혀 무시습습(無始習熟)한 숙업의 선율은 여지없고 마음을 수시로 흔들어 놓아도 언제 어디로 갈 곳 하나 모르고 살아가는 뜬구름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새해에는 허망된 용망과 아집을 버리고 서로 베풀면서 복덕을 쌓아 복되고 희망찬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번뇌를 버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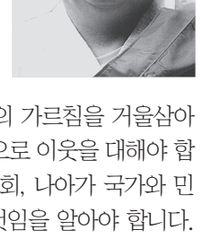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어떤 날은 비가 오고 어떤 날은 맑고 화창하며, 어떠한 날은 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칩니다. 자연의 이치가 이러하듯 우리 사바세계의 삶도 때로는 힘들기도 평탄하기도 좋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니, 마음 하나를 제대로 잘 다스리며 여기에 모든 자유가 있고 모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거울이 자기 얼굴을 잘 볼 수 있게 하듯이 번뇌에 찌들은 마음을 깨끗이 경자년에 닦아야 하겠습니다.

농부의 마음같이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정수유심(靜水流深) 심수무성(深水無聲)

고용한 물은 깊이 흐르고,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듯 고용함 속에 참 진리가 있는 것이다.

침묵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린후에 새싹이 돋아나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과 같다.

세세 년년 밝게 비치니 영원의 등불이어라, 새 해에 일체 중생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하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미움과 탐욕을 버리자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팔십평생 만난 년이 잘했다는 년 별로 없고 그저 그년이 그년일세 , 흔 년이 가면 새년이 오는법 간 년 참 시끄러운 년일세. 기해년이 떨던 꼴값 지은 구업 어찌할꼬 육체는 무상하고 업보는 끝이 없나니 시비나 성패도 지나고 보면 다 허무한 것 오늘 내 행동은 순간 순간 행복과 불행을 만드나니 혼탁한 이시대에 미움과 탐욕을 버리고 시끄러운 년에 피운 촛불일랑 오는 년엔 자비광명 되어 온 누리를 밝혀 주옵소서, 나무아미타블 관세음보살.

인과법 바르게 실천하는 해로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파

내가지은 것은 지은대로 받는 불교의 인과법을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거를 원방하고 남 탓을 하기 보다는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부처님의 참뜻을 항상 생각하며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례와 신념의 생활을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진으로 세상 복덕 절로 쌓이네

대한불교삼론종 종정예하 혜승

山上白雲白又白 산상백운백우백
山中流泉滴又滴 산중류천적우적
誰人解看白雲容 수인해간백운용
那邊雲外靑山碧 내변운외청산벽
산위의 흰 구름은 희고 또 희고
산속에 흐르는 물은 흐르고 또 흘러
누가 흰 구름의 모습을 이해해 보나
저쪽 구름 밖에 청산이 파랗구나

새벽 아침 깨달음의 노랫소리로 시방세계 신세계가 열립니다. 사찰마다 집집마다 청정한 불자들의 정진으로 세상의 복덕이 절로 쌓이니 나날이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입니다. 청정한 향기를 머금은 법우는 산과 세상 구분없이 내려 행복으로 열리는 매일매일의 나날들을 축복합니다.

화해와 용서의 경자년을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도선

기해년을 보내고 경자년 새해를 맞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고, 헛된 것은 버리고 참된 것을 되살려 밝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아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동체대비심으로 화합하고 양보해야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내가족, 이웃, 사회, 나아가 국가와 민족, 인류의 안녕과 발전을 약속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해의 어려움을 흘흘 털고 화해와 용서로써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새해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가득하시기 서원합니다.